

고려불교처럼 우리도 한마음으로

부산불교聯, 전통문화 팔관회 봉행

〈고려사절요〉 등 고려시대 문헌에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려 팔관회의 원형을 알리고 계승·재현하기 위한 전통문화 축제가 열렸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1월 5-6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일원에서 2011년 전통문화 팔관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인 5일에는 팔관회 기념 부산시민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가 열렸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걷기 명상으로 부처님 수행을 실천했다.

이튿 날인 6일에는 팔관회 재현법회를 비롯해 수계법회,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팔관회 재현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과 수석 부회장 화산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팔관회 재현

법회는 차분히 진행됐다.

팔관회 재현법회에 이어 은가족이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 국태민안 기원 호국영산대제, 전통궁중음악 연주, 팔관회 축하공연인 '우리가락 한마당',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팔관제 수계법회는 200여 불자들이 일제히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팔관제에는 살생, 도둑질, 사된 음행, 거짓말, 음주를 금하는 다섯 가지 계율에 '부도님께 효도하라', '스승을 공경하라', '나라에 충성하라'의 3계를 더한 계로 불자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해 바른생활을 실천해 가도록 하는 계다.

한편, 팔관회는 신라 진흥왕이 토속신앙을 제전행사로 통합시키고 불교의 의례를 결합하여 처음 개설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 팔관회를 계승해 어지러웠던 시국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 불교의례로 봉행했다. 고려 팔관회는 건국 공신들을 추모하는 위령제 등이 추가돼 고려 최고의 문화 축제로 자리



2011 팔관회 재현 법회에는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700여 년 가까이 민중 속에 묻혀 있던 관회의 문화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불교 행사를 넘어 민족 문화 창달의 범국가적 행사로 팔관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3년 전인 1998년 팔

관회의 문화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불교 행사를 넘어 민족 문화 창달의 범국가적 행사로 팔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백양사, 산사음악회 '쌍계루의 추야몽' 개최

각종 전시회 2000여 명 참여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지역민들과 음악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5-6일 2011 백양산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개최했다.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6일 백양사 박물관에서 만암·서용 스님을 비롯한 백양사 고승 관련자료 전시회와 나비 전시회를 시작으로 내일로부터 300만인 전시, 수석으로 만나는 부처, 달마, 나한상 등의 다양한 전시회가 진행됐다.

6일 열린 야단법석에는 굿패마루의 대북공연, 어린이 트로트선동, 가야금 병창

이 공연됐으며 지역민 중 효자·효부 표창과 조순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7일에는 인기가수 박상철, 윤태규, 정정아 씨의 공연과 장성지역 어르신들의 민요가 선보였다.

시몽 스님은 "백양산 백양봉과 어우러지는 백양사는 최고의 관광지이자 수행처"라며 "백양사를 찾은 모든 이들이 마음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행사와 별도로 쌍계루 주변에서는 JTS의 북돋움기 캠페인과 단주만들기 체험, 떡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등이 펼쳐져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아암 환우 위한 무등산 걷기 열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1월 6일 무등산 제4수원지 청풍원터에서 원호사까지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는 현지, 지각, 일명 스님을 비롯해 운전자 불자회, 원각사 청년회 등 3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개방한 무등산 옛길

을 따라 5.35km의 산행이 진행됐다.

또 오후에는 원호사에서 주권기, 김제선, 유미량, 소리심사람들의 공연과 마술쇼 등이 이어졌다.

현지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병상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병마를 이겨내기를 기원한다"며 "전진불처럼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신행회, 아침밥 나누기 행사 진행

광주지역 대표 신행단체가 청소년들의 아침을 챙겨줘 화제가 되고 있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1월 4일 전남여고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심사일만 밥차 청소년 아침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이 손길을 건네고, 따뜻한 사회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실시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사에는 광주무진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350여 개의 주먹밥을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2008년부터 지역 사찰들과 공동으로 심사일만 밥차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먹거리를 나누는 무료급식사업을 120여 회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스님들, 태국 수해 돕기 나섰다

승보회, 태국 고승에 성금 전달

조계종 광주 승보회(회장 일명)는 11월 4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태국 수재민을 위한 기금 500만원을 붓타카타 스님(보리수 선원 선원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태국은 수도 방콕을 비롯해 태국 전역에서는 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여 400여 사망자와 300만 이재민이 발생했다.

붓타카타 스님은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구호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보회 회장 일명 스님은 "TV를 통해 불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태국 시민들의 고통에 회원들의 힘



붓타카타 스님은 11월 7일 태국 현지에서 구호 사후처리를 조사했다.

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얻은 것도 얻지 못한 것도 없다

〈숫타니파타〉의 내용 중에 '죽기 전에' 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율을 지키는 자를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요타마여, 그 최상의 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대답했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며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으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염려할 것이 없다."

성자는 노여움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랑하는 일이 없고 후회하지 않으며, 주문을 외거나 들뜨는 일 없이 말을 조심한다. 미래를 원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욕망에 잡히는 일도 없다. 감관에 닿는 갖가지 사물에서 멀리 떠나 온갖 견해에 유혹됨이 없다. 탐욕에서 멀리 떠나 거짓을 모르며,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고 인색하지 않으며, 거만하지 않고 남에게 싫은 인상을 주지 않으며, 말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믿는 것도 없고 욕망에서 떠날 일조차 없다. 이익을 바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익이 없다고 해서 노하지도 않는다.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역하는 일이 없으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일도 없다. 갖가지 욕망을 돌이켜 생각지 않는 자야말로 '평안한 자' 라고 나는 말한다. 그에게는 얽매이는 사슬도 없고, 이미 모든 집착에서 떠나버렸다.

그에게는 자식도 가족도 논밭도 주택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없고 또 아직 얻지 못한 것도 그에게는 없다. 범부나 사문, 또는 바라문들이 그를 비난하여 탐욕의 허물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는 탐욕을 생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논란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성인은 탐욕을 떠나 인색하지 않으며 '자기

는 잘났다' '자기는 동등하다' '자기는 못났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분별에 따르지도 않는다. 성인은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이 없다. 또 지닌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가지는 일도 없다. 실로 그를 '평안한 자'라 할 수 있다.

"이미 얻은 것도 없고 또 아직 얻지 못한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자꾸만 뇌리를 스친다

마음이 평안하면 욕망도 사라진다. 사된 마음이 욕망으로 변하여 중생에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서로 잘 낫다고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너의 의견은 틀렸다고 하는 세상이다 이것도 자신만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한발 물러나서 쳐다보면 더 멀리 볼 수도 더 넓게도 볼 수 있는데 서로 가까이서 으르렁 거리면서 보니 바로 하얀모습 짐그린 모습만 보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남이 변하길 바라기전에 내가 먼저 변해보는 것은 어떨까? 남이 먼저 손내밀기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또 어떨까?

웃는 얼굴에 침 못뺏는다는 옛 속담도 있지 않은가? 웃어보자.

욕망은 끝이 없는 아주 못된 마구니와 같다. 매달려 있으면 서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았으면 눕고 싶고 누웠으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이다.

옛 말씀에 '조고각하'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자신의 발밑부터 살피면 더 큰 욕심은 꿈꾸지 않지 않겠는가?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익산 정각사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익산 정각사(주지 일명)가 익산 서부 전법도량으로 탄생했다. 정각사는 11월 6일 금사회 회주 월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대웅전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익산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승림사 주지), 남원사 주지 상래 스님,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김진수 전북교포사단장, 이춘서 민주

당 국회의원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증명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승보살의 자세로 수행생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명 스님은 "삼존불 조성불사를 계기로 정각사가 수행과 교육, 전법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0 종도들에게 올리는 글

존경하는 200종도께 제위 여러분 부처님이 불법을 개창하고 전법해오신지 2555년 그간 우리 불자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토구현의 가치를 내걸고 면면히 그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종단의 창종주이신 대곡당 범보대종사께서 환우로 투병하시면서 종단의 인허가를 득하여 공포한지도 4주년이 지난 이후 종단의 진로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일부 불순한 생각으로 종권에 욕심을 두고 있는 몰지각한 몇 명의 승려들에 의해 표류해오다 다행히도 창종주이신 대곡당 범보대종사께서 환우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회복되시어 지난해 10월 19일에 총본산인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74-1 용문사에서 대곡당 범보대종사께서 지시하여 종회의장 법현스님께서 구종 대책회의를 열어 화기에애한 가운데 여법하게 총무원장 청곡스님을 추대 하였던바 스님의 사찰에 화재등으로 사임하고 또다시 표류 해 오던 중 월광스님을 종정예하께서 추천하였으나 종회에서 심의결과 월광 총무원장께서는 타종단의 종정직에 재임중인바 민족불교총무원장직에는 안맞는 관계로 2011년 11월 3일 종회의장 법현스님 주석사찰인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관한리 정각사 대웅전에서 종정예하를 모시고 종단 최고 정책회의에서 비상대책회를 발족하여 종회의장께서 종령으로 민족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무기관의 해산을 확인하고 종헌 중법을 일시정지하고 당분간 법인 이사회의 주도로 조직하고 임명, 행정, 호계의 3권을 관장토록 하여 법인의 정관과 종헌 중법을 일부 개정하여 3권을 관장토록 하여 법인의 정관과 종헌 중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구총무원과 중앙총회의원을 새로 선출하고 새로 개최하는 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전 종헌, 종무기관을 새롭게 선임하여서 종정추대위원회를 개하여 종정, 총무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사오니 애교 애중하는 전 민족불교조계종 종도께서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5(2011)년 11월 10일

(사)민족불교조계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법현 위원 : 금담, 수해, 대진, 성청, 도효, 범성, 수연, 성연, 우연화, 청정수

- 본 산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74-1 063) 834-3044 017-328-3009
- 비상대책위원회 031)883-0417 010-481-2560

제 3회 원효학술상 공모

元 曉 學 術 賞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철학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회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 주제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상기 부문 중 자유선택, 1인 1편 응모)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1,000만원 혹은 논문상: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원
 - 석, 박사과정 학생 3인 이내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국내 및 해외국민·외국인 포함, 영예에 한함)
-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2) 저술 2부, 논문(별제본) 3부
 - ① 학생 논문인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 ②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7년 1월-2011년 12월 30일까지)에 발표된 저술이나 논문에 한함(저서는 ISBN 등록본).
 - ③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방법
 - 1) 접수 기간: 2012년 1월 2일(월) ~ 2012년 2월 29일(수) 오후 5시까지
 - 2) 접수 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차 소인 유효)
 - 3) 접수처: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 719-2606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2012년 4월 중순(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 2) 시상식: 2012년 4월 말(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